

<漁父辭> - 屈原

屈原既放，游於江潭，行吟澤畔。顏色憔悴，形容枯槁。

굴원이 이미 쫓겨나 江潭에서 노닐어 못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조릴 적에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생기가 없었다.

漁父見而問之曰，子非三閭大夫與。何故至於斯。

어부가 그를 보고 묻기를“그대는 삼려대부가 아닌가? 어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하자,

屈原曰，舉世皆濁，我獨清。衆人皆醉，我獨醒。是以見放。

굴원이 대답하기를“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만이 홀로 깨끗하고, 온 세상이 모두 취하였는데 나만이 홀로 깨어있으니, 이 때문에 추방을 당했노라.”하였다.

漁父曰，聖人不凝滯於物，而能與世推移。世人皆濁，何不淪其泥而揚其波。衆人皆醉，何不餽其糟而歎其醜。何故深思高舉，自令放爲。

어부가 말하길,“성인은 사물에 막히거나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 변하여 옮겨가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탁하거든 어찌하여 그 진흙을 휘저어서 그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으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취하였거든 어찌하여 술지게미를 먹고 맑은 술을 마시지 않고, 무슨 연고로 깊이 생각하고 고상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추방을 당하게 한단 말인가.

屈原曰，吾聞之。新沐者必彈冠，新浴者必振衣。安能以身之察察，受物之汶汶者乎。寧赴湘流葬於江魚之腹中，安能以皓皓之白，而蒙世俗之塵埃乎。

이에 굴원이 대답하였다. 내가 들으니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갓을 털어쓰고, 새로 목욕한 자는 반드시 옷을 털어서 입는다 한다. 어찌 깨끗한 몸으로 남의 더러운 것을 받는단 말인가. 차라리 瀟湘강물에 달려들어 강고기의 뱃속에 장사지낼지언정 어찌 희고 흰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쓴단 말인가.

漁父莞爾而笑，鼓枻而去。乃歌曰，滄浪之水清兮，可以濯吾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吾足。遂去 不復(부)與言。

이에 어부는 빙그레 웃고는 노를 두드리고 떠나가면서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 그는 마침내 떠나가서 다시는 더불어 말하지 못하였다.

<歸去來辭 序> - 陶淵明

余家貧 耕植不足以自給 幼稚盈室 餽無儲粟 生生所資 未見其術 親故多勸余爲長吏 脫然有懷 求之靡途  
 나는 집이 가난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급하기에 부족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집 안에 가득한데 독에는 저장된 곡식이 없었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고자 하나 그 방법을 미처 찾지 못하였다. 친척과 친구들이 나에게 長吏가 되기를 많이 권하니 꺼릴 것 없이(脫然히 따지지 않고)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會有四方之事 諸侯以惠愛爲德 家叔以余貧苦 遂見用于小邑 於時風波未靜 心憚遠役 彭澤去家百里 公田之利足以爲潤 故便求之

때마침 제후들 간의 전쟁(사방지사)이 있어 제후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덕을 베풀곤 하였는데 집안 숙부께서 내가 가난하고 고생한다고 하여 마침내 조그만 읍에 등용되었다. 당시에 풍파(사방지사)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 멀리 가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을 마음에 꺼렸는데 팽택현은 집에서 백 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공전의 수입으로 족히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곧 그 자리를 구하였다.

少日眷然有歸與之情 何則? 質性自然 非矯勵所得 飢凍雖切 違己交病 嘗從人事 皆口腹自役 於是悵然慷慨 深媿平生之志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연히(그리운 생각에)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그러한가? 천성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면 이는 억지로 교정한다고(교려) 해서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굶주림과 추위가 비록 절박하다고 해도 내 자신의 천성을 어기게(違) 되면 더욱 괴롭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남을 좇아 일한 것은 모두 입과 배를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를 수고롭게 부린 것일 뿐 이었다. 이에 창연히 서글프고 강개하여 평소(평생)의 뜻에 몹시 부끄러웠다.

猶望一稔 當斂裳宵逝 尋程氏妹喪于武昌 情在駿奔 自免去職 仲秋至冬 在官八十餘日 因事順心 命篇曰歸去來兮 乙巳歲十一月也

그래도 곡식이 한 번 익는 것을 보고 의당 옷가지를 챙겨서 밤에 (고향으로) 가고자 하였다. 얼마 후程씨에게 시집갔던 누이가 무창에서 죽었으므로, 바빠 가보고 싶은 뜻이 있어 스스로 그만두고 관직을 떠나게 되었다. 仲秋로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있기 80여 일. 일에 인하고 마음에 순응하여 글을 '歸去來兮'라 이름하였다. 을사년(동진(東晉) 안제(安帝) 의희(義熙) 원년(405년)) 11월이다.

<歸去來辭> - 陶淵明

歸去來兮. 田園將蕪. 胡不歸. 既自以心爲形役. 奚惆悵而獨悲. 悟已往之不諫, 知來者之可追. 實述塗其未遠. 覺今是而昨非. 舟搖搖以輕颺, 風飄飄而吹衣. 問征夫以前路, 恨晨光之熹微.

돌아가자!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려 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미 스스로 마음을 형체의 사역으로 삼았으니, 어찌 실심하여(추창) 홀로 슬퍼하기만 하겠는가. 이미 지나간 날은 따질 수 없음을 깨닫고(悟) 앞으로 올 것은 바른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알았다. 실로 길을 잃었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으니, **지금**이 옳고 **어제**는 **잘못이었음을 알았노라**. 배는 흔들흔들(요요) 가벼이 날리고(경양) 바람은 살랑살랑(표표) 옷자락에 불고 있다. 길가는 나그네(征夫)에게 앞길을 물으니 새벽빛이 희미함을 한스러워하게 된다.

乃瞻衡宇, 載欣載奔. 僮僕歡迎, 稚子候門. 三徑就荒, 松菊猶存. 携幼入室, 有酒盈樽.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顏.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園日涉以成趣, 門雖設而相關. 策扶老以流憩, 時矯首而遐觀.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마침내(이에) **조그마한 집**(형우)을 바라보고 **기뻐 달려가니**(且欣且奔), 동복들은 환영하고 어린아이는 문에서 기다린다. 세 갈래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휴) 방에 들어가니, 술이 술동이(준)에 가득히 있기에 술병과 술잔을 끌어다가 스스로 따라 마시고 뜰의 나뭇가지를 보면서(면) 얼굴을 편다(이안). 남쪽 창가에 기대어 오만함(자유로움)을 부치니, **무릎을 용납할만한 곳이 편안하기 쉬움을 알았다**. 전원을 날마다 거닐어 취미를 이루고, 문은 비록 설치되어 있으나 항상 닫혀있다. **지팡이**(부로)를 짚고서 **가며 쉬며**(류계) 하다가 **때로는 머리를 들어 멀리 바라보니**(시교수이하관),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수)에서 나오고, 새는 날다 지쳐서 돌아올 줄 안다. 햇볕이 뉘엿뉘엿(예예) 장차 지려고 하는데,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댄다.

歸去來兮. 請息交以絕游. 世與我而相違. 復駕言兮焉求. 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 農人告余以春及. 將有事于西疇. 或命巾車, 或棹孤舟. 既窈窕以尋壑, 亦崎嶇而經丘, 木欣欣以向榮, 泉涓涓而始流. 羨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

돌아가자! 교제를 그만두고 교유를 끊어야겠다. 세상이 나와 서로 맞지 않으니, 다시 수레를 타고 무엇을 구하겠는가?(벼슬길에 나아가 무엇하겠나!) 친척들의 정담을 기뻐하고 거문고와 서책을 즐기며 근심을 잊는다. 농부가 나에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니, 장차 서쪽 밭두둑에 농사일이 있게 되었구나! 혹은 휘장수레(건거)를 준비하라 명하고 혹은 외로운 배를 노저어서(도) **이미 깊숙이**(요조) **골짜기를 찾고 또한 꼬불꼬불 험한 길**(기구)로 언덕을 지나니, 나무들은 쭉 뻗어(흔흔) 꽃피려 하고 샘물은 졸졸(연연) 비로소 흐른다. 만물이 제 때를 얻음을 부러워(선)하고 우리 인생이 **장차 끝남**(행휴)을 느낀다.

已矣乎. 寓形宇內復幾時. 曷不委心任去留, 胡爲乎遑遑欲何之. 富貴非吾願, 帝鄉不可期. 懷良辰以孤往, 或植杖而耘耔. 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

그만두어라! 형체를 우주 안에 붙이고 살기를 다시 얼마나 하겠는가! 어찌하여 마음에 맡겨(委) 떠나고 머무름(去留; 死生)을 임의대로(任) 하지 않고 어찌하여 황황히 급하게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부귀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상제의 고향은 기약할 수 없다. 좋은 철(良辰)을 생각하여 홀로 가고 혹은 **지팡이를 꽂아두고**(植; 치) 김매어본다.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가에 임하여 시를 짓는다. 잠시(聊; 료) 조화를 타고서 일생을 마치려하니, 천명을 즐기는 것에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前赤壁賦> 蘇子瞻

壬戌之秋七月既望，蘇子與客泛舟，遊於赤壁之下，清風徐來，水波不興。舉酒屬客，誦明月之詩，歌窈窕之章，少焉月出於東山之上，徘徊於斗牛之間，白露橫江，水光接天。縱一葦之所如，凌萬頃之茫然，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止，飄飄乎如遺世獨立，羽化而登仙。於是飲酒樂甚，扣舷而歌之，歌曰，桂棹兮蘭槳，擊空明兮泝流光。渺渺兮余懷，望美人兮天一方。

임술년 가을 7월 既望(16일)에 소자가 객과 함께 배를 띄워 적벽강 아래에서 노니,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파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술잔을 들어 객에게 권하고(屬) 명월시를 외우며 요조장을 노래하였는데, 조금 있다가(少焉) 달이 동산의 위로 떠올라 斗星과 牛星의 사이에 배회하니, 흰 이슬은 강을 가로질러 있고 물빛은 하늘을 접해있었다. 갈대만한 작은 배(一葦; 일위)의 가는 바(所如)를 따라 만경의 아득한(망연한)물결을 타고 가니(凌; 령), 호호함(넓고넓음)이 마치 허공에 의지하고(빙허) 바람을 몰고(어풍) 가는듯하여 그칠 바를 모르겠고, 표표함(나부낌)이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학이 되어(우화) 신선으로 오르는 듯하였다. 이에 술을 마시며 몹시 즐거워 뱃전을 두드리고(구현) 노래하니, 그 노래에 이르기를“계수나무 노(계도)와 목란의 상앗대(난장)로 물속에 비치는 달 그림자(공명)를 치며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아득하고 아득한(묘묘)내 마음이어! 미인을 바라보니 하늘 한쪽 편에 있다.”하였다.

客有吹洞簫者，倚歌而和之，其聲嗚嗚然，如怨如慕，如泣如訴，餘音嫋嫋，不絕如縷，舞幽壑之潛蛟，泣孤舟之嫠婦。蘇子愀然正襟危坐而問客曰，何爲其然也。客曰，月明星稀，烏鵲南飛，此非曹孟德之詩乎。西望夏口，東望武昌。山川相繆，鬱乎蒼蒼，此非孟德之困於周郎者乎。方其破荊州，下江陵，順流而東也，舳艫千里，旌旗蔽空。釃酒臨江，橫槊賦詩，固一世之雄也，而今安在哉。況吾與子，漁樵於江渚之上，侶魚鰕而友麋鹿。

객중에 통소(통소)를 부는 자가 있어 노래에 맞추어(倚) 부니, 그 소리가 오열하는 듯(오오)하여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하고, 여운이 가날프고(뇨뇨) 길게 이어져 끊이지 않음이 실 끝과 같으니, 그윽한 강골짜기의 잠겨 있는 교룡을 춤추게 하고, 외로운 배의 과부를 울게 하였다. 소자가 초연히 웃기를 의미고 무릎 꿇고 앉아(초연정금위좌) 객에게 물어보기를“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통소를 부는가?”하자, 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달이 밝고 별이 드문데 오작이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조맹덕(조조)의 시가 아닌가? 서쪽으로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을 바라보니, 산천이 서로 엉켜 울창하니 이는 조맹덕이 주량(주유)에게 곤궁하던 곳이 아닌가? 그가 형주를 격파하고 강릉으로 내려와 물결(長江)을 따라(순류) 동쪽으로 진출할 때에 전함(축로)이 천 리에 뻗쳐 있고 깃발이 공중을 가리웠다(정기폐공). 술을 걸러(시주) 강에 임하고 창을 비껴들고 시를 읊으니(횡삭부시), 진실로 한 세상의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나와 그대는 강저의 사이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면서 물고기와 새우들과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들과 벗하고 있다.

駕一葉之扁舟，舉匏樽以相屬，寄蜉蝣於天地，渺滄海之一粟。哀吾生之須臾，羨長江之無窮。挾飛仙以遨遊，抱明月而長終，知不可乎驟得，託遺響於悲風。

일엽의 작은 배를 타고서 술 바가지와 술동이를 들어 서로 권하니(촉), 천지에 하루살이(부유)가 붙어 있는 것이요 창해에 한 좁쌀알이다.(좁쌀처럼 보잘 것 없다.) 우리 인생이 덧없이 짧음을 슬퍼하고 장강의 무궁함을 부러워하여, 나는 신선을 끼고 한가로이 놀며(오유) 명월을 안고 길이 마치려 하나 이것을 갑자기 얻을 수(취득) 없음을 알기에 여운(유향)을 슬픈 바람에 의탁하는 것이다.”

蘇子曰，客亦知夫水與月乎．逝者如斯，而未嘗往也，盈虛者如彼，而卒莫消長也，蓋將自其變者而觀之，則天地曾不能以一瞬，自其不變者而觀之，則物與我皆無盡也，而又何羨乎．且夫天地之間，物各有主，苟非吾之所有，雖一毫而莫取，惟江上之清風，與山間之明月，耳得之而爲聲，目寓之而成色，取之無禁，用之不竭，是造物者之無盡藏也．而吾與子之所共樂．客喜而笑，洗盞更酌，肴核既盡，盃盤狼藉．相與枕藉乎舟中，不知東方之既白．

소자가 말하길, “객은 또한 저 물과 달(자연과 시간)을 아는가? 강물은 가기를 이처럼 하나 일찍이 다하지 않으며, 달은 찼다 기울었다하기를 저것처럼 하나 끝내 사라져 없어지거나 자라서 커지지 않는다. 그 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도 일찍이 한 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참지 못하고; 能=耐),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물건과 우리 인간이 모두 무궁무진한 것이니, 또 어찌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또 천지의 사이에 물건은 각기 주인이 있으니, 만일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비록 한 털끝 만큼도 취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강 위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명월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을 붙이면 색을 이루어(‘之’는 明月), 취하여도 금하는 이가 없고 써도 다하지 않으니, 이는 조물주의 무궁무진한 보고(무진장)이고, 나와 그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객은 기뻐하여 웃고 잔을 씻어 교대로(更) 술을 따르니, **고기안주와 과일**(肴核; 효핵)이 이미 다하고 술잔과 소반이 낭자하였다. 서로 배 가운데 베고 깔고(침자) 누워서 동쪽이 이미 흰하게 밝음을 알지 못하였다.